

장의 位置만 듣고 그 附近을 調査하였으나 土器片 二、三點을 表面採集한 以外에 別 收獲은 없었다.

土器는 平底인 深鉢形으로 口徑一四·七cm 底徑八·二cm 高一五cm의 赤褐色

이며 器體의 一部는 製作後에 불을 입었는지 黑灰色을 띤 곳이 있다. 胎土속에는 長石系의 細砂가 比較的 많이 섞였으며 土器의 表面은 磨滅이 甚하여 細砂가 뚜렷히 들어나 있다. 器 內壁은 煤煙을 甚하게 입은 타인지 大部分이 黑色으로 변하였고 磨滅은 거의 불 수 없다. 器底는 所謂 平底라는 樣式으로 平凡한 平面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所謂 無文土器 또는 厚肉無文土器라고 불리는 土器가 支石墓에서 出土되었다는 報告는 從來까지는 없었으나 昨年에 國博에서 施行한 바 있는 忠北 堤川郡의 南方式支石墓의 發掘調査에서 支石墓의 蓋石直下에서 發見된 箱形石棺(國博에 復原展示中인) 속에서 丹塗磨研土器와 같이 出土된 바가 있고 역시 杞溪面의 다른 部落에 있는 支石墓에서 그와 똑같은 土器破片이 多數 發見되었던 바있기에 이 土器가 出土된 遺構——住居址로 認定함——가 支石墓를 營爲한 時代의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附記해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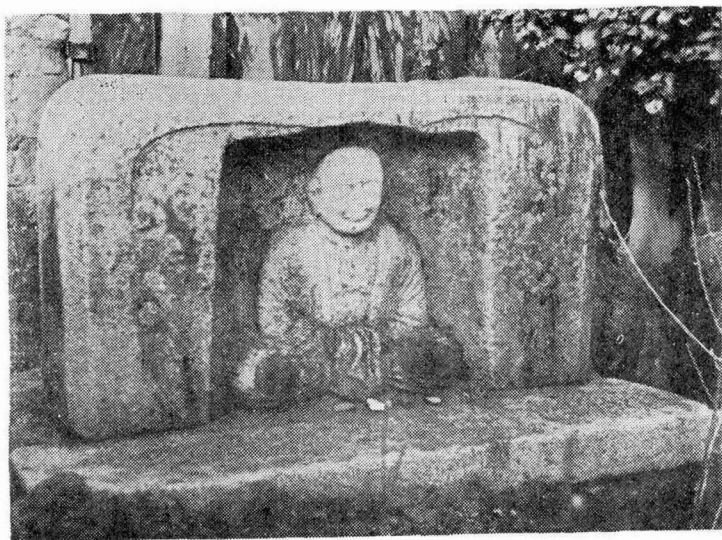
## 石造僧形像의 一例

鄭 明 鎬

昨年 十一月初旬頃에 慶州市 路西里 大慈園이라는 孤兒院 院長舍宅

庭園內에 있는 石造僧像 一軀를 調査한 바 있어 이를 紹介하고자 한다. 本來 이 僧形像은 月城郡 川北面 神堂里에 放置되어 있었던 것인데 院長 趙仁佐氏에 依하여 約十一年前에 現所在地로 옮겨졌다고 한다. 그러나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慶州郡條에 있는 佛像「川北面神堂里 幅四尺 高サ二尺 五寸ノ石ニ佛像一體彫刻セリ 神堂里 部落中ニアリ」라 함은 이像의 現寸이 幅四尺四寸五分 高二尺三寸七分임으로 이 記錄과 大差 없음을 보아 이 僧形像을 佛像으로 誤認記載한 듯하다. 形態는 長方形花崗石의 中間部에 龕室을 만들고 中央에 結跏趺座한 僧形像을 浮刻하였다. 양은 큼직하고 등골게 며 있으며 코는 磨滅이 甚하나 높고 컷을 것으로 짐작된다. 若干 微笑를 나타내기 爲하여 입술을 가볍게 내밀었고 口唇兩頰의 輪廓이 뚜렷하게 表現하여 졌다.

두 손은 마주잡고 무릎위에 올려 놓았으며 발은 筋肉이 힘차게 나타났고 袈裟는 通肩으로 마주잡은 손과 발을 가린 옷자락은 앞으로 내려 흐르고 있다. 此外에 龕室外廓에 浮彫한 眼象兩側에는 各各 內向한 교사리 紋이 있다. 上端의 左右는 모를 죽이고 石材나 龕室도 上部兩端은 모를 죽이고 있다. 또한 石



材의 兩側面에도 前述한 바와 같은 眼象이 浮刻되었다.  
 以上으로 보아 이 彫刻像은 아마도 佛壇의 一用材로 推定되어서 本來  
 는 一枚로 構成한 듯하다. 이 像 裏面의 中央이 弓形으로 깎아진 것을  
 보아 이곳에 어떠한 것을 插入케 한 遺構인 듯하며 現在 이 石材 밑에  
 놓인 板石도 이 像의 副材인 듯하다.

製作手法로 보아서는 十世紀後半의 것으로 推定되어 진다. 保管은  
 完全하나 原所在地의 確認이 必要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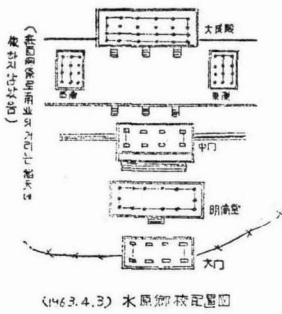
各部 實測値는 다음과 같다.

高一·三七尺 幅四·四五尺 龕室 高二·二尺 幅上二·二尺 下二·  
 四尺 佛像座高二尺 肩幅一·五尺 膝幅一·九五尺

## 水原鄉校 大成殿

申 榮 勳

水原市校洞四三番地所在(正門 正面三間 側面一間의 삼문)을 들어서면  
 前庭이 있고 그 中央에 팔각지붕의 明倫堂(正面五間 側面二間)이 있는데 이  
 건물은 南陽鄉校의 건물을 移建한 것이라 한다. 지금은 유리문을 달아  
 모양이 변하였다. 明倫堂 後便에 築臺를 쌓고 前面에 石階를 모은 후에  
 左右로 土牆이 있는 中門(正面三間 側面一間의 삼문)이 있다. 문을 들어서  
 면 한 단 높아지는 臺가 있어 三個所에 別造된 石階를 오르게 되었다. 이



(1:463.4.3) 水原鄉校配置圖

中庭 左右에 同規模의 東西廡(正面三間 側面二間)가 向對하여 있다. 中庭보다 한층 높은 地臺에 築石하고 長大石으로 劃한 大成殿(正面五間 側面三間)을 지었다. (配置圖 參照)

大成殿은 柱座 없는 圓錐形 礎石 위에 흘림 없는 圓柱를 세우고 창방을 짜들었다. 前面一間은 開放되었는 바 平柱와

第四卷 第四號 通卷三十三號

高柱上의 架構手法  
 은 同一하다. 架構方  
 式을 宗道里로부터  
 보자면 마루보 中央  
 에 波蓮臺工이 놓이  
 고 거기에 도리통으  
 로 宗道里·長舌·包  
 作(침차와 소로의 짜  
 인), 뜬창방의 順으  
 로 짜여졌으며 마루  
 보 좌우로는 중도리  
 가 걸렸는데 도리아  
 래의 도리통에는 長  
 舌·包作이 童子柱  
 에 받쳐져 있고 樑  
 通에는 童子柱前後  
 로 草文이 彫刻된 보  
 아지가 마루보를 받  
 도록 되어 있다. 이

童子柱는 大梁에 놓여 있으며 그 周圍에는 華盤類의 안초공이 없다. 大  
 梁은 前後 高柱에 架構되었고 그 前後에 柱道里를 받았다. 柱道里 밑은  
 도리통으로 長舌·소로·창방이 짜여졌고 樑通으로는 짧은 양봉이 받쳐져  
 있다. 前後 退梁은 高柱의 草工아래에 插入結構되었고 그 끝에 柱道里를  
 놓았다. 退梁의 끝은 비스듬이 잘랐고 平柱에 插入한 礎草工이 양봉이  
 되어 退梁을 받도록 되어 있다. 前面 高柱間의 柱間은 도리통 架構物 아  
 래로 交窓이 짜이고 中枋아래로는 四分間의 板門이 달려 있다. 前面 開  
 放部分以外는 全壁이 土壁이고 塼정은 연등 塼정이며 建物內外에는 塼을  
 깔았다. 지붕은 양성이 있는 맛배, 겹처마이며 左右에 큰 防風板이 있  
 다. 양성 左右의 鷲頭는 서로 다르며 처마에는 莫斯瓦들이 葺瓦되어 있

